◇불교의 작법무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는 인천시립무용단이 '나비춤'을 시연하고 있다.

불교춤·향토춤 어우러진 한마당

인천시립무용단, 명발바라춤·타주춤 등

바라, 나비, 타주무 등 불교전통무용과 성주풀이, 나나니 등 인천의 전통 무용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인천시립무용단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9주년 기념으로 대공연장에서 4월 1일 저녁 7시30분 '인천의 춤, 한국의 춤'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무형문화재 범패 작법무 보유자인 능화 스님(구양사 주지)의 주선으로 이루어 진 것. 스님은 이번 공연을 위해 무용단원 37명에게 한달간 바라춤과, 법고춤, 타주춤 등 불교 작법무를 전수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바라춤 가운데 특별한 동작이 많아 가장 어렵다는 명발 바라춤을 선보인다. 또 중생의 번뇌를 북소리로 날려 버린다는 법고춤을 비롯해 영산재 가운데 식당작법에만 행해지는 타주무도 펼쳐진다. 작법의식에 걸맞게 무대 장치도 중앙에 아미타불삼존도를 이운해 놓았다. 이외에도 이번 무대에서는 각 가정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인천의 향토굿인 '성주풀이 춤'과 어촌 아낙네들이 즐겨 부르던 나나니타령에 맞춰 흥겹고 장난스럽게 추는 인천 지역 향토무용인 '나나니 춤'을 선사한다. 한국춤의 정수를 보여주는 '승무'를 비롯해 경남 산천포 농악의 벅구놀이를 새롭게 재구성한 '소고춤', 월드컵 행사때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북춤 '두드리라'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흥겨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능화스님은 "불교무용을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돼 무용단원들을 지도하게 됐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032)420-278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봄철 개편…20여 프로 새로 선뵈

불교TV, 사옥이전 계기 4월14일부터

'야! 부처님이다' 등 청소년 관련 대폭 신설

우리문화 바로보기·법화경 강의·토크쇼도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이 봉천동 사옥 이전을 기념해 프로그램을 전면 새 단장한다. 포교, 어린이·청소년, 문화, 연예, 오락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20여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개편을 살펴보면 그동안 편성프로그램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어린이·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이중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야! 부처님이다'(수, 오전 7시40분). 전국 새싹불자들이 뛰노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상에 담는다. 16일 첫 방송에서는 불교동화구연과 어린이 체조, 재활용품 등을 이용한 공작교실 '다함께 배워보자' 등의 코너가 선보인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는 교훈적인 내용을 어린이 인형극으로 꾸민 '팡팡 룸비니 동산'(월, 오전 7시40분)과 삼국유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삼국유사'(화, 오전 7시40분)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프로다. 만화와 인형극이라는 장르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신세대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VJ의 톡톡튀는 멘트와 함께 소개하는 '천상천하 가요독존'(월~토, 밤 9시40분)도 청소년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연예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꾸며진다. 매주 금요일에 선보이는 토크쇼 '김병조와 설수진의 이야기 좀 합시다'(금, 낮 12시 30분)는 스님뿐만 아니라 연예인, 문화인을 초대해 그들의 삶과 근황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간송미술관 최완수 실장이 진행하는 '우리문화 바로보기'(수·목, 오후 1시20분), 불교계 문화예술인의 삶을 조명해보는 '김영무의 문화 문화인'(금, 오전 9시20분), 불자가수는 물론 국악, 클래식, 찬불가 등에 걸친 작은 콘서트 형식의 '불교TV의 작은음악회'(시간 미정)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불교텔레비전이 4월 18일부터 새로 선보이는 토크쇼 '김병조와 설수진의 이야기 좀 합시다'.

이밖에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의'(월, 오전 9시20분) 등 포교교육 프로그램과 전국의 군법당을 소개하는 '충성, 성불하십시오'(수, 낮 12시30분) 등 군포교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불교TV 양흥식 편성팀 차장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불자들이 불교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했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불교를 이해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TV는 4월 20일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 봉안 및 점안법회를 봉천동 사옥 1층 법당에서 열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내면찾는 성찰여행

마인드 스페이스展 열려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에서 5월 18일까지 열리는 '마인드 스페이스展'은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미술에서 탈피, 예술 본연의 역할인 '내면의 성찰'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 보고자 마련한 전시다. 마크로스코, 제임스 터렐, 라니마에스트로, 한국작가 김수자 등 세계미술의 중견 작가 8명이 참여한다. '빛과 무한의 공간' '생성과 소멸의 공간' '기억과 치유의 공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오랫동안 잊고 살던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불편하다. 미술관측은 비좁은 공간처럼 만든 작품들이 다칠까봐 일부 작품의 경우 인원을 제한해 들여보내기도 한다.

우선 전시장에 들어가면 인생의 숭고함을 표현한 작가 로스코(1903~1970)의 색면 추상이 관객을 먼저 맞는다. 그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 조명을 낮췄다. 제임스 터렐의 공간 입체작품인 '보여진 것 사이'로 벽을 더듬으며 들어간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마치 심연으로부터 떠오르는 듯한 빛을 만날 수 있다.

◇대만작가 리밍웨이의 설치조형물 '편지쓰기 프로젝트'.

대만출신의 재미작가 리밍웨이는 반투명 유리와 나무격자로 된 선방 같은 곳에서 관객들이 편지를 쓰게 하는 미술 같지 않은 소통 프로그램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명 '편지쓰기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바느질을 행위예술로 격상시킨 '보따리 작가' 김수자 씨의 '바늘여인' 퍼포먼스도 비디오를 통해 선보인다. 관람객들을 가만히 있질 못하게 하면서도 무언가 한번쯤 사유를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02)771-2381.

김주일기자

◇안장헌 씨의 사진 '다보탑과 석가탑'.

불국사에 깃든 신라인정신 렌즈에

안장헌씨, 사진집 '석조미술의 꽃…' 출간

수학여행의 단골 행선지로 사랑받는 불국사에서, 늘상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10원짜리 동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일까.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가탑과 다보탑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다. 그래서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누군가 그 역사와 내력을 묻는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잘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관해서 정작 아는게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안장헌 씨가 '우리문화유산을 찾아서' 시리즈로 한길아트에서 펴낸 사진집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은 국내 최초로 석가탑과 다보탑을 집중 조명했다. 불국사의 내력을 먼저 살피고 그 불국사에 딸린 부속물로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다루어 온 것이 기존의 연구였다면, 이 책은 그것을 뒤집는다. 먼저 석가탑과 다보탑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불국사와 그 곳에 깃든 신라인들의 정신을 세밀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다.

멀리, 때로는 가깝게 잡은 사진과 감춰진 곳까지 속속들이 훑고 지나가는 카메라 렌즈에 찍혀진 사진들이 마치 직접 탑을 코 앞에 두고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조각가 한기늠씨 개인전

사유·향수 등 작품 다양

이탈리아에서 13년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가 한기늠 씨의 개인전이 4월 2~16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독실한 불자인 한 씨는 불교적 구도정신과 서양의 표현기법을 특유의 조각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 '베를린의 보리수 아래서', '사유', '향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독일 베를린에서도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깊은 사유를 느끼게 하는, 대리석과 청동을 소재로 한 조각작품들이 전시된다.

◇프랑스서 전시되는 한기늠作 '베를린의 보리수'.

문화소식

우리문화원형 콘텐츠 공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3년도 제1차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자유공모'를 실시한다.

과제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자유공모는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시각 및 청각 △전통문화·민속자료 소개 개발분야의 과제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4월 18일까지로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or.kr)로 하면 된다. (02)2166-2067

남북 민족음악 큰잔치

제4회 남북민족음악큰잔치 '겨레의 노래던'이 29~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북한 민족가극 '춘향전'이 선보이며 소해금과 저대, 대피리 등 북한의 개량악기 연주가 펼쳐진다. 우리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씨도 출연해 '찔레꽃'을 부른다.(02)2273-0237

온 누리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소서

사월초파일 연등, 행사용품은 마하몰 에서 주문하세요 !!

만 월 등

크 기 : 32cm × 32cm / 1Box : 100개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색상 : 황금, 진분홍, 연분홍, 빨강, 영가(흰색)

● 공단등(大) : 지름 23cm ● 1Box : 18개
● 공단등 (中) : 지름 18cm ● 1Box : 30개
● 공단등 (小) : 지름 15cm ● 1Box : 60개

육각등

팔모조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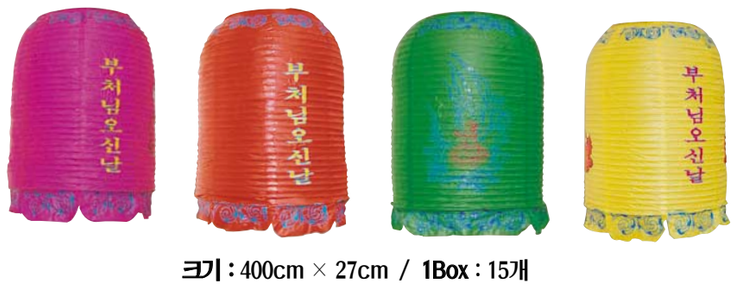
● 크기 : 26cm × 26cm ● 1Box : 100개
● 색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팔모주름등

● 크기 : 26cm × 26cm ● 1Box : 60개 (색상별 60개)
● 색상 : 핑크, 오렌지, 연두

주름등 보관상태

종 등



크기 : 400cm × 27cm / 1Box : 15개

불교문화상품전문쇼핑몰 마 하 몰 주문전화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